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3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15일 2025년 7월 9일 수요일

‘더현대 광주’ 10월 착공 서남권 관광 관문 되나

더현대 서울의 1.5배 복합쇼핑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 조성
특급호텔 난망·교통 혼잡 우려도

광주의 양대 복합쇼핑몰 사업의 하나인 ‘더현대 광주’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관련기사 3면〉

시설투자비 1조2000억원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를 창출해 침체한 서남권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더현대 광주법인은 8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더현대 광주’를 오는 10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라고 착공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착공보고회는 지난달 18일 건축허가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마련됐다. 더현대 광주법인은 추진경과, 비전 ·로드맵, 내·외부 콘텐츠 등을 공개했다.

더현대 광주는 부지면적 3만2364㎡(건축물 높이 59.19m·길이 214m·폭 111m), 연면적 27만2955㎡(지하 6층·지상 8층)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이다.

시설 투자비는 1조 2000억원으로 더현대 부산(7000억원)의 두배에 근접하고, 규모는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크다.

정지영 대표는 “더현대 광주는 국내 현대 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동안 축적한 현대백화점의 모든 역량과 인프라를 쏟아 붓겠다”면서 “단지, 복합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서남권 관광산업의 관문으로 더현대 광주를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수도권, 부산, 제주를 주로 찾는다는 점을 고려, 서남권의 유일한 대표도시인 광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더현대 광주의 문화공간을 공익적으로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관광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KIA 타이거즈 홈경기 때면 더현대 광주의 일부 주차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등 광주시와 협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과 상생방안도 마련 중이다.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토대로 상생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더 현대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5성급 특급호텔 조성과 복합쇼핑몰 교통대책이 대표적이다.

방직공장 부지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 PFV가 특급호텔 조성을 위한 이행보증금(600억원)을 걸고 특급호텔을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다. 특급호텔의 특성상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구 임동의 더현대 광주와 맞물려 광주신세계측이 광천터미널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세계백화점과 터미널이 자리한 광천동은 현재도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복합쇼핑몰 사업은 광주시를 꿀잼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발”이라면서 “더현대 광주는 시민들이 누리고 즐기는 문화공간이자, 떠나지 않는 광주 만들기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임금체불 근로자에 3개월간 1% 저리 융자

정부, 추경 81억원 확보

정부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1% 저금리로 융자를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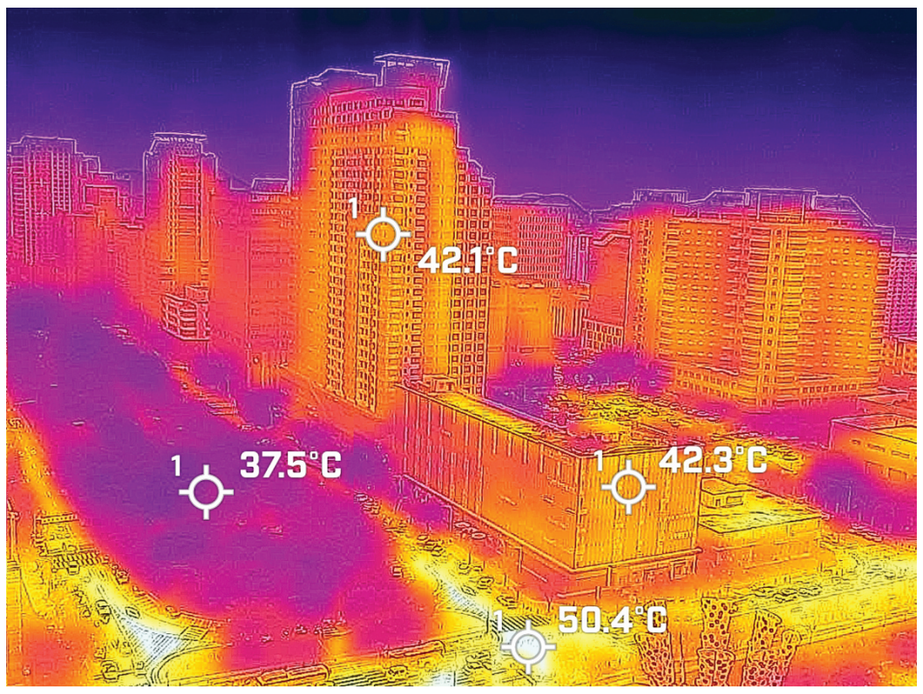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은 임금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하며, 사업주융자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금액은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는 재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이다.

/연합뉴스

숨막히는 폭염…광주, 체감온도 40도 넘었다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옥상에서 바라본 평화광장과 도심 일대가 짙은 열기로 뒤덮여 있다. 사진 속 숲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짙은 보라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치평동 일대 도심과 도로 주변은 짙은 오렌지색과 백색을 나타나는 등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도시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열섬 현상이 두드러지며, 도심 내 녹지 공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발 상호관세 연장 … 경제계 일단 ‘안도’

8월 1일부터 25% 적용
쇠고기·쌀 수입 확대 우려
전남 농가는 긴장 고조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국내 경제계가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관련기사 2면〉

다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소고기·쌀 등의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쌀·소고기 생산지인 전남지역 농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일보 6월 17일자 1면〉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하고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으며, 부과 개시 시점만 이번 달 9일에서 8월 1일로 늦춰졌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 달로 연기함에 따라 일단 협상의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여부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한국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온 정책 등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개최됐던 한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물량만 수입하는 등 무역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의 고관세율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쌀에 대해 저율 관세 물량 13만 2304 t 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외에도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NTE 보고서에서 거론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등의 수입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쌀·소고기 생산지인 전남지역 농민들이 상호 관세 협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한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상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주택조합 30%는 분쟁 중 ▶6면
KIA 김도현, 토종 선발 최다 이닝 “꿈같아” ▶18면
조인호 미술사 - 선비화가 양팽손·윤두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